사업체 매매

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949) 501-8555 Leah Ivy Chang



전 당 포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미 기업들 일시 해고 확산 … '실업대란' 현실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 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실업대란' 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업률이 32.1%까지 치솟아 4,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세계 경제를 떠받쳐 왔던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가파른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1일 '디지털타임스' 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의류업체 갭 (Gap)은 이날 매장 폐쇄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약 8만 명 규모의 미국과 캐나다 지역 매장 직원 대부분을 일시 해고하고 일부는 감원하기로 했다. 갭의 지난달 1일 현재 고용 인원은 12만9,000명이다.

직원 12만여 명을 둔 백화점 체인 콜스도 매장 직원들을 일시 해고하기로 했다. 12만5,000여 명의 직원을 둔 미국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도 앞서 직원 일시 해고 방침을 밝혔다.

비용 절감 움직임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실업자 수가 앞으로 빠르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블룸버그 통신의 설문조사 결과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3월 넷째 주(22~28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50만 건(전망치 중간값)으로 늘어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관별로는 픽텟 자산운용사가 650만 건을 예상했고, 골드만삭스(525만건)와 씨티그룹(400만건)도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

앞서 발표된 3월 셋째 주(15~21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328만3,000건으로 전주(28만2,000건)보다 무려 12배 가까이 늘어나며 실업대란의 시작을 알렸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2분기 실업률이 32.1%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4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경제성장세도 '역성장'이 확실시된다. 재닛 옐런 전 연 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브루킹스연구소와 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하강은 가파르다." 면서 "미국 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다르다." 고 분석했다 고 의회전문 더힐이 전했다.

2월 미 잠정주택판매 전월 대비 2.4%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기 직전이던 지난 2월 미국의 주택 구매 수요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2월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는 1월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2.4%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9.4%나 늘 어난 것이라고 전국부동산협회(NRA)는 밝혔다. 이는 3 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잠정주택판매지수는 2월 111.5를 기록해 1월의 108.9 에서 2.6 상승했다.

로렌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월의 잠정주 택판매 수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주택시장이 매우 건전했음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몇 주 동안의 주택 거래 건수가 코로나19로 주택시장이 얼마나큰 타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그러나이번 경기부양책이 경제적 피해를 줄여줄 것이고 연말에는 V자형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동북부 지역에서 잠정주택판매가 1월보다 2.8% 증가했고 1년 전보다는 5.9% 증가했다. 중서부의 경우 1월 대비 4.5%, 연 14.9% 증가했다. 남부 지역에서 는 잠정주택판매가 1월 대비로는 0.1% 증가에 그쳤지만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7.1% 증가했으며 집값이 가장 비싼 서부 지역에서는 1월 대비 4.6% 증가했고 1년 전보다 10.8% 늘어났다.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마이너스(-) 유가가 등장했다. 주요 산유국간 석유 전쟁으로 인해 브렌트유 등이 배럴당 20달러 안팎 까지 폭락한 와중에 일부 유종은 이미 0달러 아래 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2일 '이데일리' 가 에너지 거래업체 머큐리아에 너지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생산하는 아스팔트용 저등급 원유(Wyoming Asphalt Sour)가지나달 31일 배럴당 -8센트(-0.08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전날(-47센트·-0.47달러)에 이어 이틀째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기현상' 이다. 원유 보관 비용이 판매가보다 높아 돈을 주고서라도 저장고를 비우고 있다는 의미이다.이 유종은 올해 초(1월 2일 기준)만 해도 37.66달러였으나, 석달만에 40달러 가까이 뚝 떨어졌다.

일부 원유값이 0달러 아래로 폭락한 것은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 61.18달러→20.48달러), 브렌트유(66.25달러→22.74달러), 두바이유(65.69달러→23.43달러) 등 3대 원유 가격이 연초 대비 모두 떨어진 영향이다. 원유 가격 하락은 사우디아라비아 와러시아가 석유패권을 둘러싼 증산 '치킨게임'에 나선 것이 결정적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수요 급감 우려까지 겹쳤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국의 봉쇄 정책에 이동로가 막힌데 따른 것이다.

로버트 퍼킨스 S&P 글로벌플래츠 연구원은 "미국이 4월 내내 이동제한령을 내린다." 며 "최악(추가 폭락)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고말했다. 돈을 받고 기름을 가져가는 마이너스 유가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의 산물인 마이너스 금리 이상의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사우디아라비 아와 러시아가 최대 1,5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WTI는 배럴당 24.88달러에 거래됐다.

